

第57回

서울特別市城北區議會
行政委員會會議錄

第1號

城北區議會事務局

日 時 1996年11月11日(月) 午前10時

場 所 第1小會議室

議事日程

1. 1996年度城北區議會行政事務監査計劃案에 대한 同意的件

審査된案件

1. 1996年度城北區議會行政事務監査計劃案에 대한 同意的件(崔東煥委員 發議) 1面

(11時41分 開議)

1. 1996年度城北區의 行政事務監査計劃案에 대한 同意的件(崔東煥委員 發議)

○委員長 徐化錫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성북구의회 제1차 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성북구의회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한동의의견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을 발의한 최동환위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최동환위원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幹事 崔東煥 최동환 간사입니다. 1996년도 성북구의회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한동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성북구의 행정위원회 소관 규정 전반에 대하여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구 행정업무의 불합리한 요인을 지적 개선하여 효율적인 행정이 될 수 있도록 하며 동시에 심도있는 1997년도 예산 심의등을 위한 자료 및 정보를 얻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먼저 감사기간은 '96년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으로 하며 감사대상은 총무국, 재무국, 문화공보실, 감사실, 민원담당관실로 하며 감사장소는 구청 소회의실로 합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36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근거

하였습니다. 기타 내용은 배부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료 내용 중 동 감사반 편성에 대해서는 1반은 성북2동과 동소문동을 감사대상 기관으로 하며 반장에는 서화석 위원장님, 위원은 신중현위원님, 안철용위원님, 유진무위원님, 윤만환위원님, 윤홍노위원님, 최계락위원님 그리고 2반은 동선1동과 동선2동을 감사대상기관으로 하며 반장은 최동환 간사, 위원은 고운근위원님, 김수영위원님, 김진권위원님, 박시준위원님, 송하성위원님으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감사실시 일정에 관한 배부하신 자료에서는 다른 부분은 다 원안대로 하되, 11월 29일 금요일 3일소관 감사를 11월 30일 토요일로 옮기고 대신 토요일 동사무소 감사를 11월 29일 금요일 3일 소관 감사일정과 대체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신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徐化錫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이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우리 간사님께서 얘기한 대로 일정이란가 감사반이란가 다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네, 박시준위원님.

○朴時俊委員 많은 위원님이 일정과 시간을 좋은 말씀들을 하셨는데 11월 26일 11시부터 12시까지 구청업무보고에 구청장인사, 구의회 의장인사가 있는데 시간을 앞으로 9시로 당기든지 해가지고 감사일정도 짹

하니까 시간을 당긴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구정업무보고라든지 구청장인사, 의장인사를 생략하는 것으로 의장단하고 아주 심도있게 한번 의논을 했으면 이렇게 바라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11월 26일 11시까지 일반적인 사람은 다 출근을 보통 8시, 7시 반에 나오는데 우리 구의원님들이라고 해가지고 다 시간이 많은 것도 아니고 11시까지 이전에는 시간은 낭비하는 어떤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9시로 당긴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11월 26일 오전서부터 아주 총무국 소관으로 감사를 그냥 그대로 들어가든지 그것을 한번 이렇게 각 위원장들하고 의장단하고 의논해가지고 해야지, 과거 지난 해에는 그렇게 했는데 1대때에는 그렇게 했는데 그때 잘못된 것은 지금 고치는 것은 바람직한 것이지 꼭 2대도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님이 심도있게 각 상임위원장들하고 의논해가지고 아까운 시간에 보고로 끝나는 것으로 마치지말자 이런 얘기고 또 일반적으로 감사할 적에는 일단 감사를 들어가서 담당 부서별로 감사가 시작되고 그 다음에 단체장이라든지 의장이라든지 하는 분들은 구청 사무실에서 자기 방에서 같이 감사일정이라든지 수고하신다든지 인사를 하는 것이지 이날 와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42명 많은 우리 의원님들을 모셔놓고 구청간부들 해가지고 오전 내내 이거 보고만 받고 인사만 한다는 얘기인데 너무 소모적이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 갑니다.

○委員長 徐化錫 네,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박시준위원님께서 구정업무보고회를 갖지 않고 바로 감사로 들어가서 일에 대한 효율성을 기하자 그런 뜻이 담겨 있는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또 유진무위원님 우리 위원님이면서 운영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계시는 유진무위원님 한 말씀해 주시죠.

○俞鎮武委員 효율성이야 서로간에 진행을 해 봐야 알지만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는데는 요식과 격식을 갖추는 것도 또 우리 의회의 의상을 살리는데도 그게 바람직스럽지 않을까 전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저한테

집중적으로 질문을 해 주시니까 왜 그런 얘기를 하시는지 위원장님 취지를 모르겠네요.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의회나 구청이나 서로간에 견제인 기구라고 생각을 하고 구청을 무조건 우리가 비방하고 꼬집는다는 것 보다는 구청행사를 우리가 견제해서 서로간에 아름답고 조화있게 꾸미자는 취지인데 그것을 가장 살리는 방법은 요식과 격식을 찾아가면서 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느냐, 그리고 우리가 초대보다도 기간이 많이 늘었습니다. 초대 때보다 기간을 많이 늘려왔기 때문에 시간의 조달림을 받는다는 것은 조금은 애매모호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委員長 徐化錫 또 다른 위원님. 신종현위원님.

○申宗鉉委員 지금 박시준위원님이 좋은 말씀하시고 유진무위원님이 좋은 말씀하신 것의 절충안으로 찬성을 원안대로 하되 단 우리가 뭐냐면 우리가 11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12시에 끝나서 점심시간에 들어간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관계는 여유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은. 일주일 동안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여태까지 간담회를 통해서 말씀을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모든 문제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10시에 시작을 해서 끝나고 11시부터 우리가 실질적인 감사를 시작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委員長 徐化錫 김수영위원입니다. 우선 전제되는 것은 아까 박시준위원께서 발언하신 사항에 전적으로 찬성을 하면서 동의에 대한 재청이 되겠습니다, 표결을 하신다면. 그렇게 하고 저도 말씀드리는데 며칠 전에 보니까 우리 월드컵 개최하는데 일본에는 결승전을 주고 우리는 개막식 행사하고 앞에 제목 표기하는데 월드컵 코리아-저팬 그래서 한국은 명분은 없고 실리는 일본에 넘겨주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것으로 비교해서 본다면 지금 여기 오전에 하는 행사는 사실은 실리보다도 정말 구정에 심도있는 어떤 감사를 위해서는 초를 다룬다고 생각을 한다면 이렇게 요식 행위 하는 그런 것으로 해서 명분을 주고 실리는 빼앗기는 일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

다. 할 수 있다면 이번 기회에 아예 고쳐서 박시준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1분1초라도 더 감사하는 실질적인 시간에 투자하자 그런 생각을 해서 저는 박시준위원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전에 그랬다. 전에 그랬으면 전에 그런 사항이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면 얼마든지 우리 자신들이 바꾸면 되는 것이지 옛날에 그랬으니까 앞으로 그럴 것이고 그래야 된다는 논리가 성립된다면 이 구의회 존립에 어떤 가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徐化錫 또 다른 위원님.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형식적인 구정업무 보고를 받을 필요없이 바로 감사로 임하는 것이 낫지 않겠나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마는 다른 시민복지라든가 지역개발위원회에서 이것을 종전대로 예년대로 업무보고를 실시한다고 본다면 하기로 원한다면 과연 우리 행정위원회는 또 거기서 우리만이 주장하는 대로 할 수 없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의장님이나 부의장님이나 또는 각 상임위원장님과 토론을 해서 결정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신종현위원님.

○申宗鉉委員 의장단하고 상임위원장님들하고 회의가 있었습니다마는 거기에서 요식행위는 우리 행정위원회 의사관계를 충분히 전했습니다. 전했는데 지금 유진무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그래도 위상이라는 게 있지 않느냐 그 얘기에요. 그래서 요식행위를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결론으로 얘기가 됐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徐化錫 윤흥노위원님.

○尹弘老委員 전부 좋으신 말씀같으신데 행정감사 기관을 대표해서 구청장에게 인사를 해라 하는 것을 의회 기관에서 의결사항으로 해서 시간을 정한다는 것은 매우 불합리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감사반이 감사를 나갔다. 그러면 구청장이 와서 인사를 하고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인사말씀을 하는 것은 당연하고 상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의회에서 의결을 거쳐서 피감사기관장이 나와서 인사를 하고

의결하고 그 시간을 정한다는 것은 본의원이 판단하기에는 매우 불합리하다 또 감사기관의 장이 의장이 나와서 감사반을 독려하고 나와서 인사하는 것은 또 당연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마는 이것을 의결을 거쳐서 시간을 정해서 와서 해라 이런 요식행위는 제가 판단하기에는 불합리한 것이지만 이렇게 판단이 돼서 당초 박시준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형식요건을 편의에 따라서 할 일이지 의회에서 결정해서 감사기간중에 인사하는 시간을 감사시간으로 정한다는 것은 삭제했으면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예를 들어서 감사원들이 의원들이 감사기관에 가서 감사를 대표하는 단장이라든지 의장이 그 기관을 찾아가서 이렇게 감사를 하게 된다고 하고 먼저 인사를 하는 게 도리이고 거기서 나와서 감사하는 분들에게 나와서 구정에 대한 현황이라든지 또 거기 인사말씀이라든지 나와서 의결절차 격식없이 나와서 하는 것은 있겠습니까마는 이런 요식행위에 의한다고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돼서 박시준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그러한 사항은 인사하고 이런 업무보고하고 하는 계획은 일정시간은 삭제했으면 합니다.

○委員長 徐化錫 또 다른 위원님, 김수영위원님.

○金壽榮委員 지금 박시준위원님, 그 다음에 윤흥노위원님이 발언하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안하고자 합니다. 단 한 표가 나와도 현재 이 안은 행정위원회 중론으로 제안하고자 합니다. 단 한 표가 나와도 현재 이 안은 행정위원회 중론으로 정해서 본회의에 할 수 있다면 부의할 시간이 있다면 부의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아니면 부의할 시간이 없다면 행정위원회의 결정사항을 여기서라도 표결해서 행정위원회 안이라는 사실을 대외에 발표하게 해 주시기를 동의합니다. 물론 속기가 들어가니까요. 왜냐하면 저는 요식행위에 대해서는 상당히 비효율성이라고 생각하고 아직도 우리가 그래요. 구시대적인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속기에 들어가죠. 구시대적인 발상. 그러니까 물론 구민들의 중의에 의해서 뽑힌 구의원입니다. 그런데 구청장도 구민들의 중의에

의해서 뽑힌 구청장입니다. 피차 민선 구청장과 민선 구의원이 됐다면 동등하고 평행적인 위치에서 대등하게 해야지 어느 한 쪽이 어느 한 쪽에 군림하는 그런 발상은 없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徐化錫 또 다른 위원님. 네, 안결용위원님.

○安傑瑤委員 감사실시 일정에 관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 있으셨습니다. 본 위원은 구정업무보고 개최의 건에 대한 내용은 박시준위원님, 윤홍노위원님, 김수영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이 계신 것을 본위원도 동의합니다. 그러나 운영위원장님이나 신종현 부의장이 다시 말씀이 있으신 내용에 우리가 참고나 참작을 해야 할 사항은 그래도 운영위원회에서 감사실시 일정을 이렇게 계획을 잡아 놔는데 이것을 또 다시 행정위원회에서 우리가 원안을 바꿔서 계획을 잡으려고 생각하면 이게 여러가지로 모순은 없을지 몰라도 여러가지 위상관계가 문제점이 있으리라고 봐서 현재 차년도 부터 다음 학기부터는 이런 행정감사 시기에 구정업무보고 같은 것은 듣지 않는 것으로 우리 의회 자체에서 자율적으로 스스로 자연스럽게 이렇게 결정을 해야지 이렇게 다 잡아놓은 것을 이제와서 행정위원회에서 번복을 해가지고 하면 다른 위원님들간의 의회 위상이 어떻게 서는 게 아니라 어떤 추락하는 이런 입지가 가는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이 되어서 아까 신종현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행정감사 실시, 효율적인 감사 시간을 우리가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방책으로 구청장 인사말씀이나 우리 구의회의 행정감사를 임하는 의장의 인사나 모든 것을 10시에 실시해서 11시 안에 끝내고 바로 행정감사에 임했으면 하는 이런 생각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徐化錫 또 윤만환위원님.

○尹晚丸委員 먼저 박시준위원님과 윤홍노위원님의 말씀에 동의하면서 말씀 올리고 싶습니다. 본위원도 사실 감사를 나갈때 거기에 해당되시는 분이 와서 인사를 자연스럽게 감사하는 장소에 와서 인사를 하는 것은 좋으나 우리가 인사를 받자고 전체 감사를 합니다 했으면, 감사는 했다는 통보만

하면 되는 것이지 인사를 받고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관례에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이번에 또 어떤 의미에서 이렇게 결정이 되었는지 모르겠어요. 하나 어떻게 감사한다고 해서 감사원들한테 인사를 받도록 합니까? 뭘 잘봐달라는 얘기도 아닌 것이고, 아무리 다른 위원회에서 했더라도 우리 행정위원회에서는 저는 거기에 인사를 받으러 가는 자체는 뭔가 좀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회는 가시더라도 우리 행정위원회에서만은 정확한, 받지 않고 바로 감사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徐化錫 유진무위원님, 1주일동안의 감사 일정만 결정된 사항이지 그날 시간이 결정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운영위원회에서.

○俞鎮武委員 운영위원회에서는 세부적인 안만,

○委員長 徐化錫 세부적인 안만 나왔죠? 그러니까 일정은 26일부터 1주일간 감사하겠다는 것만 나왔기 때문에, 우리 행정위원회 위원님 의사를 묻겠습니다. 거수로 결정하겠습니다.

(「잠깐만요」하는 이 있음)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俞鎮武委員 이것이 금년에 처음 시행하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작년도에 이런 일이,

○委員長 徐化錫 그러니까 지금 얘기가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俞鎮武委員 아까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시간이 없다고 하면 시간을 앞당겨도 좋고, 과거에 하던 것을 한번에 뒤바꾼다는 것은 모순이에요.

○委員長 徐化錫 그러니까 옛날에 하던 것을 꼭 답습한다든가 그대로 종행할 필요는 없는거죠. 때에 따라서는 잘못된 것은 바로 시정도 하고 고쳐나가야 하는 것이니까.

윤홍노위원님.

○尹弘老委員 감사일정 시간은 그대로 계획된 안대로 시행을 하도록 하고 감사 개시 시간에 수감기관의 대표 한 사람이라든지 구청장이라든지 나오셔서 그때 편의적으로 인사말씀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원칙이지 감사 일정에다가 구청장 인사, 의장

인사 이런 것은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는 사항입니다.

○尹晚丸委員 윤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행정위원회에서 감사를 하고 있을때 구청장이 자연스럽게 와서 고생하십니다, 열심히 좀 감사해 주십시오, 이렇게 각 위원회별로 다니는 것은 좋지만 어떻게 전 위원장하고 의장까지 인사를 하고 이런 식을 갖습니까?

○俞鎮武委員 아니 과거에 이렇게 한 것인데 우리만 안한다고 그래?

○尹晚丸委員 과거가 잘못되었으면 잘못된 것을 고쳐나가야 될 것이,

○俞鎮武委員 아니 이게 전체 위원회에서 거론된 것을 왜 여기서 뒤바꾼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尹晚丸委員 전체적으로 언제 거론이 됐습니까?

○俞鎮武委員 우리 위원회에서 거론할 것이 따로 있지, 전체 위원회에서 가결된 것을 우리 한 위원회만 고친다고 해서, 어떻게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회의를 잘못 진행을 하시는 거지.

○委員長 徐化錫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여기서,

○俞鎮武委員 각 분과 전체 위원회에서 거론해서 결정된 사항을 행정위원회에서 뜯어 고친다고 이것 우리만 해서 우리만 감사를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

○委員長 徐化錫 예, 김수영위원님.

○金壽榮委員 지금 운영위원장님 의견이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운영위원회에서 가결이 된 사항은 전체적인 각 소관된 감사일정과 시간을 정해 놓으신 사항이고 또 우리가 조금 전에 서로 최동환 간사께서 보고를 드렸습시다라는 날짜를 당기거나 조정해서 동 행정사무감사나 3일 소관 감사는 뒤바뀌가지고 하기도 했으니까 이것은 권위적인 문제가 아니라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서 이것은 구정 업무보고나 구청장 인사나 구의 의장 인사를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라 제가 지금 생각하는 것은 이렇게 대처하기를 동의합니다. 정식회의 절차대로 위원장께서 진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

다.

구청업무 보고회에 구청장 인사, 구의회 의장 인사 등을 일정한 장소에서 하는 요식행위를 배제하고 해당 감사장에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기관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가 나와서 악수도 하고 격려도 하고 당부하고 가는 것으로 대처하기를 동의합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委員長 徐化錫 잠깐요, 최동환 간사님.

○崔東煥委員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이것은 어쨌든 상정된 안이고 확정된 안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변경은 가능한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안 자체가 아직 확정은 안됐지만 묵시적 동의에 의해서 저는 올라왔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러니까 전체 일정에 맞춰가지고 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행정위원회에서 어떻게 하자 결정할 수 있는, 물론 의견은 제안할 수 있지만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위원님들이 제시하신 안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전체 의장단 회의에서나 이것을 다시 한 번 제의하시는 것이 어떤가 그렇게 봅니다. 여기서 어떻게 결정할 성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俞鎮武委員 위원장, 이것이 근본적으로 잘못됐다고 하는 것은, 오전 행사는 우리 행정위원회만의 행사가 아니라니까요, 전 위원이 같은 공동의 행사를 하는데 우리 행정위원회만 별도로 떼어서 말씀을 하시고 그래요. 위원장이 진행을 잘못 하는 거예요. 위원장이 회의를 잘못 진행하는 것을 지적하는 거라고요.

○委員長 徐化錫 잠깐, 안결용위원님.

○安傑瑤委員 안결용위원이 의사진행에 대한 발언을 하셨습니다. 여러가지로 일장일단 다 좋은 말씀들인데 10분간 정회를 해서 정회 끝에 우리 간담회 아까도 했습시다라는 간담회를 다시 해서 회의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본위원이 바로 이 사실 관계를 얘기하고 싶습시다라는 속기록 관계가 있어서 저는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委員長 徐化錫 좋습니다. 그러면 구정업무 보고회로 인해서 찬·반에 대한 갑론을박이

있으므로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
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時09分 停會)

(13時29分 續開)

○委員長 徐化錫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오늘 의논한 사항을
다시 문서화하여 내일 의결하도록 하자는데
여러 위원님들 생각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이 끝났으므로 산회
를 선포합니다.

(13時30分 散會)

○出席委員 11人

申 宗 鉉	安 傑 琿	俞 鎭 武
尹 晚 丸	尹 弘 老	徐 化 錫
崔 東 煥	高 允 根	金 壽 榮
金 振 權	朴 時 俊	

○缺席委員 2人

宋 夏 星 崔 桂 洛

○參席專門委員

專 門 委 員 金 鎭 永